

나주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 나선다

임신·출산·난임·보육 가정 대상 저출생 문제 극복 농가 소득 기여 남도장터 총 구매비용 80% 한도 전용 아이디 발급 자율 구매 방식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목표"

전라남도 나주시가 임신, 출산가정, 난임부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농가 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고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추진에 나섰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해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가 전라남도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면 자부담 20%를 제외한 총 구매비용의 80%, 연간 최대 38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임신부와 난임부에서 가정보육 영유아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은 난임부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양육가정(가정보육)으로 같은 연도 내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사업비 2억7000여만원을 투입해 임신부 382명, 난임부부 70명, 영유아 양육가정 120명 등 총 572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구매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남도장터를 통해 로그인 전용 아이디(ID)를 발급받아 쇼핑몰

내 친환경농산물 전용관에서 식품을 자율 구매할 수 있다.

단 1회 구매 시 3만원 이상이면서 전체 금액의 50%가 친환경농산물이어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신부, 난임부부에 이어 올해는 가정 보육을 하는 영유아 가정까지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며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친절 교육 나주시, 원산지 표시법 안내 등

전라남도 나주시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친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나주시는 지난 28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식품 안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주 15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나주시지부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 식품접객업의 친절 서비스, 세무·노무관리, 위생 상태 점검 방법 등을 비롯한 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www.foodservice.or.kr) 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www.kfoodedu.or.kr)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1차 20만원)가 부과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나주를 만드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이용 캠페인 화순군,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

전라남도 화순군은 지난 28일 고인돌 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 불편 신고 및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은 피켓과 홍보 전단지 등을 활용해 면허증 필수, 2인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필수, 음주운전 절대 금지, 교통법규 준수, 무단 방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수칙을 홍보했다.

방상열 도시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를 이동하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수칙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



남광주농협, 농촌 일손돕기 봉사 농가부담 줄이고 지역 상생 실천

광주광역시 남광주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구 양과동 농가를 찾아 대대적인 일손돕기 행사를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영종 조합장을 비롯해 임직원 20여명, 농가주부모임과 고향주부모임 회원 30여명 등 총 50여명이 참여해 못자리 모판 나르기 등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일손돕기는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영농철 집중되는 작업량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모판을 나르고, 농작업 현장에서 농민들과 소통했다.

이영종 조합장은 "바쁜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농촌 일손돕기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곡성군 지역 어린이들이 축구 활동을 하고 있다. 곡성군드림스타트는 오는 12월까지 축구교실 등 신체·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드림스타트,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곡성군이 오는 12월까지 곡성군체육회 재능기부 연계를 통해 드림스타트 초등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축구교실과 배드민턴 교실 등 신체·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곡성군체육회의 후원으로 생활스포츠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참여하는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하고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프로그램은 기본교육(스포츠 정신 및 예의)과 운동 전 스트레칭, 기초교육과 운동 후 스트레칭 등으로 이뤄진다.

곡성군 관계자는 "신체·건강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올해도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을 발굴해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육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가정의 달 맞이 할인 이벤트 화순팜, 전 상품 최대 20%

전라남도 화순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9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화순팜에서 '5월의 진심, 가족사랑'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품목 20% 할인 쿠폰을 회원당 3매씩 지급하며 신규 가입 3000원 쿠폰은 선착순 3000명에 한해 자동 발급된다.

행사 첫날을 시작으로 일부 품목에는 깜짝 황제 특가를 적용한다. 해당 가격은 기존 판매가 대비 최대 67% 저렴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팜 누리집(www.hwasunfarm.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전한 농촌활력과정은 "가족을 향한 소중한 진심이 화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로 고객들의 가격 부담은 줄이고 농가에는 소비증진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기업당 50% 범위 내

전라남도 곡성군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전까지 곡성군에 입주 및 등록된 제조업 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2024년도에 공장등록한 기업의 경우 등록일 이후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다.

2025년도 이전에 공장등록한 기업이라도 휴·폐업 기업, 공장등록소재지에서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국제·지방세 체납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환경관련법 등을 위반해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인 기업, 타 기관의 물류비 관련 보조금 중복수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에 생산된 완제품을 수출하

거나 관내 지역에서 관외 지역으로 판매와 출하를 하는데 발생한 물류비용을 기업당 50%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약 2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누리집(www.gokseong.go.kr/kr/main.do)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은 공장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뒤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